

## 노인간호 교육과 노인유사체험으로 구성된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및 평가

오현수<sup>1</sup>, 정혜선<sup>2\*</sup>

<sup>1</sup>인하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청주대학교 간호학과

###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consist of knowledge about nursing care for elderly and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Hyun-Soo Oh<sup>1</sup> and Hye-Sun Jeo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유사실험 설계를 적용하여 간호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간호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공감증진 노인유사체험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문지식만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전문지식과 함께 공감증진 노인유사체험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전문지식만을 제공받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노인에 대한 태도( $t=2.56, p=.026$ )와 노인간호 실천의도( $t=6.73, p=.003$ )에 있어 더욱 긍정적이기는 하였으나, 집단 내의 중재 전-후의 차이는 가설에서 설정된 바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유사체험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경우는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노인에 대한 태도( $t=1.22, p=.170$ )나 노인간호 실천의도( $t=-0.08, p=.470$ )에 있어 미미한 정도로 개선되었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대조군의 경우는 중재 후 노인에 대한 태도( $t=-2.33, p=.012$ )나 노인간호 실천의도( $t=-1.08, p=.150$ )에 있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whether the education program consisted with knowledge about professional care for elderly and content of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to improve empathy had positive effects on attitude and intention to practicing nursing care toward elderly.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t was appear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provided both knowledge and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elderly( $t=2.56, p=.026$ ) and intention to practicing nursing care for elderly( $t=6.73, p=.003$ ), compared with the group provided knowledge only. However, after experiencing elderly simulation program, the attitude toward elderly( $t=1.22, p=.170$ ) and intention to practice nursing care for elderly( $t=-0.08, p=.470$ ) in experimental group improved very little or so, whereas the attitude toward elderly( $t=-2.33, p=.012$ ) and intention to practice nursing care for elderly( $t=-1.08, p=.150$ ) in comparison group became even worse.

**Key Words** :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Attitude, Nursing intentio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

구를 증가시켰으며[1] 노인의 건강관리 영역이 점차 다양해짐으로써[2] 다차원적, 다분야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이 갖는 다차원적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질병 및 신체적 차원의 지식습득을 넘어 노인에게

\*Corresponding Author : Hye-Sun Jeong

Tel: +82-10-4726-6770 email: hsjeong@cju.ac.kr

접수일 12년 01월 16일 수정일 (1차 12년 02월 08일, 2차 12년 02월 14일, 3차 12년 02월 20일, 4차 12년 02월 27일)

계재확정일 12년 04월 12일

한 전인적 이해, 공감,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일 것으로 사료된다.

가치-기대 이론이나 사회인지 이론과 같은 행동변화 이론에 따르면 태도는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 고정된 정신적 입장이나 학습 및 교육을 통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3]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 변화된 태도는 특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높게 되며 의도는 궁극적으로 행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헌을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을 향한 행동과 양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4]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실무에서 노인에 대한 간호의 질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5].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6-8] 이러한 문헌적 근거들은 향후 노인의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간호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며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전인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 주어야 한다[9]. 그러나 현재 간호학과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간호 관련 교과목은 노인의 질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실습지 또한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국한된 경우가 많다[10,11]. 즉 간호대학생들이 교과과정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노인 관련 경험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경험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향후 임상에서 돌보게 될 환자는 노인 연령층이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 학생들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노인에 대한 질적 간호가 일어나도록[5]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현재의 대학생 연령층은 핵가족 형태의 가족체계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전 성장기를 통해 노인과의 교류가 적은 연령층이라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 대학생 중 성장과정에서 노인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50% 이하인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4,7,12,13]. 이처럼 노인과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교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노인이나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짐으로써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런 과정과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및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공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인데 노인에 대한 공감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에 기여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다.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및 노화과정, 그리고 노인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나 노인에 대한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내적인 준거틀(internal frame of reference)을 정확하게,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를 말한다[14]. 이러한 정의에 비춰볼 때 다른 존재에 대한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그 사람의 일상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체험해보는 것이야말로 공감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노인간호 교육콘텐츠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증진을 위한 노인 유사체험 등 다차원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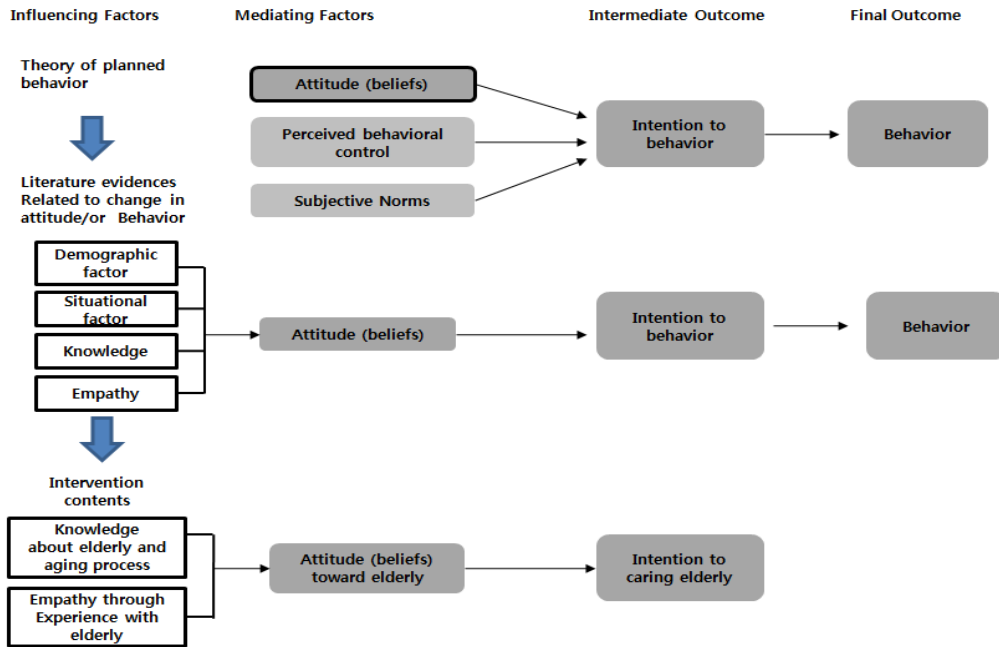
임상실무 현장에서 노인에 대한 질적 건강관리 및 간호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의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노인간호 관련 교과목을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에 대한 공감을 높일 수 있는 노인유사체험으로 구성하여 제공한 후,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나 노인간호 실천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나 노인간호 실천의도의 긍정적 변화는 미래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질적인 간호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토대로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에 대한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인유사체험을 포함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구성된 프로그램을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이 교육프로그램이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1.3 연구가설

가설 1: 노인간호 관련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에 대한 공감증진을 위한 노인유사체험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전문지식만을 교육받은 대조군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그림 1]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개념틀 도출과정  
 [Fig. 1] The process of deriving the study framework

가설 2: 노인간호 관련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에 대한 공감증진을 위한 노인유사체험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전문지식만을 교육받은 대조군에 비해 노인간호 실천의도에서 더욱 긍정적인 것이다.

## 1.4 용어의 정의

### 1.4.1 노인유사체험

노인유사체험은 노인이 되었을 때의 신체적 변화와 그것과 동반되는 문제를 가상적으로 체험하는 것[15]으로 본 연구에서는 체험자가 노인체험복을 착용한 상태로 노인의 시력기능(신문읽기), 청력기능(핸드폰전화하기), 척추 및 관절기능(계단오르내리기, 평지걷기), 손가락기능(물건 집어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상 활동 및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1.4.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신념으로[3], 본 연구에서는 Sanders 등(1984)의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16]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1.4.3 노인간호 실천의도

노인간호 실천의도는 전문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간호행위를 실천하겠다는 의도를 의미하며[17], 본 연구에서는 최희자(2002)[17]의 노인간호 행위 실천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수정·보완한 노인간호 실천의도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1.5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개념틀

본 연구의 개념틀은 계획된 행위이론과 행동변화와 관련된 문헌적 근거들을 참조하여 도출되었으며 도출 과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계획된 행위이론[3,18.]에 따르면, 행동은 의도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즉 어떤 행위를 실천하겠다는 의도는 그 행위의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 이론에서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3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1)태도, 2)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3)지각된 행동통제 등이 그것이다.

태도는 실천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신념이며, 주관적 규범이란 실천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의미하고, 지각된 행동통제란 행위실천과 관련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정도를 말한다[3]. 이론

에 포함된 3가지 요소가 모두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히 태도(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가 행위 실천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에 대한 행동의도, 그리고 노인에 대한 행동은 노인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위의 실천의도가 높아짐은 물론, 긍정적 행위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행위에 대한 태도(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에는 인구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상황적 요인, 그리고 행위 또는 대상에 대한 지식 등이 있는데[20], 이 중 교육이나 중재를 통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지식이다. 즉 교육을 통해 노인과 관련된 지식을 향상시킨다면,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에 대한 개인의 공감(empathy) 또한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은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태도개선과 아울러 행동실천에 대한 의도 및 행동실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22]. 즉 노인에 대한 공감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위 실천의도 및 행위실천이 일어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고찰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론 및 문헌적 근거를 통해 볼 때 어떤 행위에 대한 실천의도나 행위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행위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어떤 대상이

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포함하는 한편, 대상에 대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콘텐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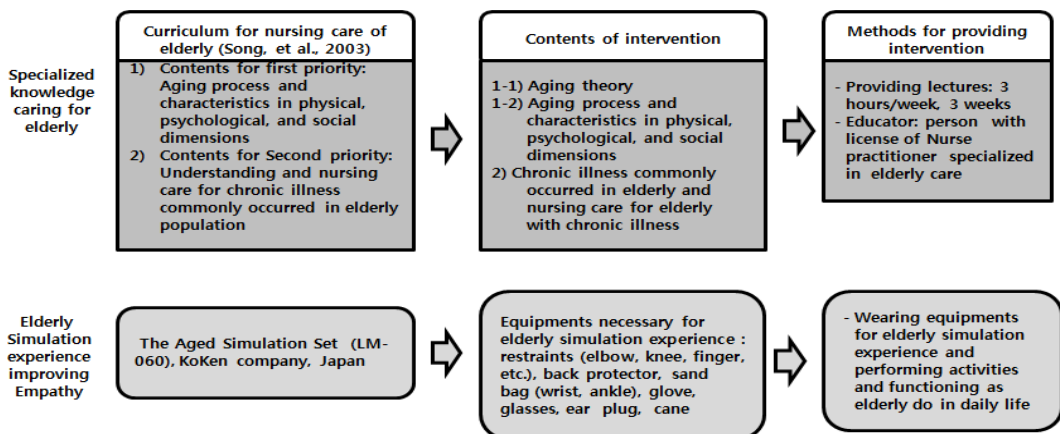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적용한 유사 실험설계 연구이다[그림 3].

### 2.2 연구대상 및 집단배정

연구대상자는 충청북도 소재 일개 전문대학의 간호학 전공 2학년 학생 92명(실험군 42명, 대조군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해 제시된  $\alpha$  값(0.05)과 1- $\beta$  값(0.8)을 기초로 power analysis를 시행하여 산출된 표본크기는 60명(실험군, 대조군 각 30명)이었으며 이러한 산출근거에 비춰볼 때 본 연구에서 포함한 대상자수는 중재 및 자료수집 과정 중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하더라도 가설검정을 위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당초 실험군에 42명, 대조군에 50명을 배정하였으나 수집된 자료를 정리한 결과 응답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가 있어 이를 제외한 총 87명의 대상자(실험군 38명, 대조군 49명)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동일한 수의 대상자가 배정되지 못했던 이유는 노인간호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분반



[그림 2]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구성과 교육프로그램 제공절차 및 방법  
 [Fig. 2] Process of constructing and procedures of providing intervention program

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가 수행된 대학의 경우 한 학년이 2개의 반으로 분반되어 교과과정이 운영되는데 연구에 참여한 학년의 경우 한 반은 42명, 나머지 반은 50명으로 구성되었다. 두 집단의 학생 수가 동일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으나 교과목 운영상의 편리성과 실험효과의 확산방지를 위해 이러한 분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 2.3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구성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의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콘텐츠는 노인에 대한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콘텐츠와 노인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인유사체험으로 구성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의 콘텐츠 구성과 제공방식에 대한 내용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 2.3.1 노인간호 관련 전문지식 향상프로그램

노인간호 관련 전문지식 향상프로그램의 내용은 송미순 등 (2003)[23]의 노인간호 교과과정 모형개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이 연구자들이 노인간호 교과과정 모형 개발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교과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내용은 신체-심리-사회적 노화 과정 및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였으며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내용은 노인에게 호발하는 만성질환들에 대한 이해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화이론, 신체-심리-사회적 차원의 노화과정 및 노인의 특성, 노인에게 호발하는 만성질환 및 간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지식 향상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1주에 3시간씩 3회에 걸쳐 제공되었고, 교육은 주로 강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노인전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였다<그림 2>. 전문지식 향상프로그램을 3주 동안 제공한 이유는 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외 노인유사체험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 2.3.2 공감증진을 위한 노인유사체험

노인유사체험은 신체적 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일본 Koken사의 ‘The Aged Simulation Set(LM-060)’을 적용하여 제공하였다. 이 제품은 노인체험복을 착용하고 노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기능들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제품은 억제대(팔꿈

치 1쌍, 무릎 1쌍, 손가락 1쌍), 등 보호대, 모래주머니(손목 각 500g, 발목 각 1kg), 장갑, 안경, 귀마개와 지팡이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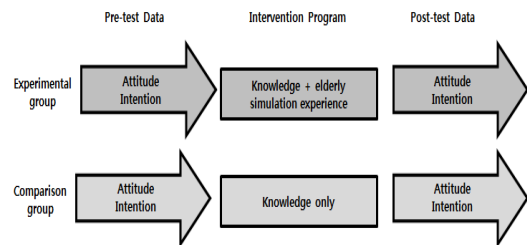
### 2.4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자료수집 절차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실험군에게는 노인간호 관련 전문지식과 노인유사체험을 제공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노인간호 관련 전문지식만 제공하였다(그림 3).

노인유사체험은 실험군에게 1회 제공되었으며 제품 설명서에 따라 장갑 및 손 억제대, 등 보호대, 팔꿈치관절 억제대, 무릎관절 억제대, 손목과 발목 모래주머니, 귀마개와 안경의 순서로 노인체험복을 착용하고 노인의 일상생활을 경험해보도록 하였다. 즉 노인체험복을 착용한 상태로 노인의 시력기능(신문읽기), 청력기능(핸드폰전화하기), 척추 및 관절기능(계단오르내리기, 평지걷기), 손가락기능(물건 집어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상활동 및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그림 2).

노인유사체험을 위한 시간은 체험복장을 착용하는데 10-20분, 주어진 행동을 수행하는데 15-30분이 소요되었고 노인유사체험이 끝난 후에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였다.

결과변수들에 대한 자료수집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 두 집단 모두에게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대한 사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두 집단 모두 사전자료와 동일한 변수들에 대한 사후자료를 수집하였다(그림 3).



[그림 3]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자료수집 절차  
[Fig. 3] Procedure for intervention and data collection

### 2.5 측정도구

#### 2.5.1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등(1984)[16]이 개발한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Sanders 등(1984)이 관련된 연구결과들[24,25]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각 문항은 “현명한-어리석은”, “친절한-불친절한”, “무식한-박식한” 등과 같이 상반

되는 20 개의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진 7점 척도 도구이다. 대상자는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 및 신념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각 쌍을 보고 자신의 느낌이나 신념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anders 등[16]의 원도구를 번역한 후, 노인간호 전공의 간호학과 교수 2 인을 대상으로 도구의 문항들이 원도구의 문항을 반영하되, 한국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도 적합한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Sanders 등[16]의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선형연구의[26,27] 도구와 본 연구의 도구를 문항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의 경우에는 Cronbach's  $\alpha = .81 \sim .88$  (사전-사후 측정자료)로 산출되었다.

### 2.5.2 노인간호 실천 의도

본 연구에서는 최희자(2002)[17]가 개발한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 도구를 노인간호 실천의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노인에 대한 총체적 차원(신체-심리-사회적 차원)의 간호행위를 실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16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대학생이므로 노인간호를 직접 실천하기 어려워 도구의 문항은 그대로 사용하되 응답가지를 수정하였다. 원도구의 응답가지는 “항상 하고 있다; 가끔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전혀 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항상 그렇게 할 것이다; 가끔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로 수정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를 통해 구축되었는데 도구의 개발자는 관련된 문헌들을 고찰하여 노인을 위해 핵심이 되는 간호행위들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핵심 간호행위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노인간호 전공의 간호학과 교수 2인을 대상으로 도구의 문항들이 노인간호 실천의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적합한가를 검토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원 개발자가 보고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90 이었다 (사전-사후 측정자료).

## 2.6 자료분석

대상자 특성 및 노인관련 경험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동질성은 t-test와  $\chi^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중재 프로그램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미친 효과 검정은 ANCOVA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92.0%가 여성이었고, 55.2%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59.8%는 평소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3.3%만이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었으며, 46.0%는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었고, 33.7%는 평소 알고 지내는 노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관련 특성은 두 집단이 동질하였다[표 1].

### 3.2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평가

#### 3.2.1 노인에 대한 태도 평가

두 집단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사전자료에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태도에 대한 사후자료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 가설은 방향성 가설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유의성 검정은 단측검정(one-tailed test)를 통해 이루어졌다.

중재 후 실험군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81.16±8.37점, 대조군은 75.96±11.30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즉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유사 체험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전문지식만을 제공받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표 2].

그러나 각 집단의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중재 전-후 자료를 가지고 비교한 결과, 가설에서 설정된 바와는 달리 실험군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는 하였으나(79.13±10.72->81.16±8.37),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 대조군의 경우는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79.62±13.71->75.96±11.30),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

#### 3.2.2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대한 평가

두 집단의 노인간호 실천의도는 실험 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노인간호 실천의도가 높아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간호 실천의도 사전자료는 중재 효과에 대해 공변량 변수가 되므로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대한 중재효과 분석은 ANCOVA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노인간호 실천의도와 관련된 가설 역시 방향성 가설로 설정되었으므로 유의성 검정은 단측검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재 후 노인간호 실천의도는 실험군 60.78±3.46점, 대조군 57.49±5.3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2 또한 지지되었다. 즉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유사체험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전문지식만을 제공받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노인간호 실천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집단 내의 중재 전-후 변화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가설에서 설정된 바와는 달리, 실험군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60.84±3.57->60.78±3.46), 대조군은 중재 후 오히려 감소하였다[표 2].

[표 1]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 및 동질성 검정  
[Table 1] Homogeneity Test between Groups

Variable	Category	Total (n=87) n(%)	Experimental group (n=38) n(%)	Comparison group (n=49) n(%)	X <sup>2</sup> (P)
Gender	Female	80 (92.0)	37 (42.5)	43 (49.4)	2.67 (.102)
	Male	7 ( 8.0)	1 ( 1.1)	6 ( 6.9)	
Religion	Yes	48 (55.2)	20 (23.0)	28 (32.2)	0.18 (.675)
	No	39 (44.8)	18 (20.7)	21 (24.1)	
Concern for elderly	much	52 (59.8)	25 (28.7)	27 (31.0)	2.67 (.263)
	So-so	34 (39.1)	12 (13.8)	22 (25.3)	
	not at all	1 ( 1.1)	1 ( 1.1)	0 ( 0.0)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	Yes	29 (33.3)	13 (14.9)	16 (18.4)	0.02 (.879)
	No	58 (66.7)	25 (28.7)	33 (37.9)	
Experience of Volunteer service for elderly	Yes	40 (46.0)	17 (19.5)	23 (26.4)	0.04 (.838)
	No	47 (46.0)	21 (24.1)	26 (29.9)	
Presence of significant elderly	Yes	29 (33.7)	10 (11.6)	19 (22.1)	1.30 (.254)
	No	57 (66.3)	27 (31.4)	30 (34.9)	

[표 2]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Table 2] Effects of Intervention on Attitude toward Elderly and Intention to Nursing Care Behaviors for Elderly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Within group differences (Pre-Post)
		M(SD)	M(SD)	t(p) <sup>3</sup>
Attitude <sup>1</sup>	Exp.* (n=38)	79.13 (10.72)	81.16 (8.37)	1.22(.170)
	Comp.** (n=49)	79.62 (13.71)	75.96 (11.30)	-2.33(.012)
Between group difference	F(p) <sup>4</sup>	0.02(.877)	2.56(.026)	
Intention <sup>2</sup>	Exp.* (n=38)	60.84 (3.57)	60.78 (3.46)	-0.08(.470)
	Comp.** (n=49)	58.47 (4.50)	57.49 (5.38)	-1.08(.150)
Between group difference	F(p)	7.75(.007)	6.73(.003) <sup>5</sup>	

<sup>1</sup>: Attitude toward elderly

<sup>2</sup>: Intention to nursing care behavior for elderly

<sup>3</sup>: Paired t-test, one-tailed test

<sup>4</sup>: Univariate ANOVA: one-tailed test

<sup>5</sup>: Results of one-tailed test of ANCOVA(the pre-intervention score of intention is included in the analysis as covariate variable)

\* Exp. : Experimental group

\*\* Comp. : Comparison group

####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간호 관련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유사체험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문지식만을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의도 향상에 더 효과적인가를 검정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유사체험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전문지식만 제공받은 대조군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대부분의 노인유사체험의 효과를 검정한 연구들 [6,28,29]은 단일 실험군 전후-설계(원시실험설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들의 결과를 본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다수의 선행 연구들[6,28-30]을 통해 노인유사체험이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 의학 전공 대학생,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도움으로써 노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에 부합하였다. 다만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위해 노인유사체험이 널리 적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타당도가 높은 설계를 적용한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충분한 경험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노인유사체험은 노화로 인한 관절,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기능 저하를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노인유사체험을 통해 노인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체험함으로써 노인의 행동이나 모습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는 노인유사체험이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문헌적 근거들[25,28,30]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하였으나, 각 집단 내의 중재 전·후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실험군 조차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조군의 경우는 오히려 중재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노인유사체험 전·후 노인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29,32].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에게 체험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도록 하여 수집한 질적 자료분석 결과에서는 노화로 인해 신체적 불편감이 많이 느껴졌으나 그러한 불편감을 통해 노인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인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고 노인에 대한 돌봄 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보고하였다[28,29,32,33]. 따라서 노인유사체험 후 태도의 변화를 측정할 때에는 태도에 대한 양적측정과 함께 대상자의 체험을 질적으로 파악하는 자료수집이 병행되어야만 중재에 대한 효과를 보다 더 정확하게 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나 다른 관련된 연구들[29,32,34]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노인유사체험자들은 체험 직후 노인의 상태나 노화과정에 대해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체험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이 매우 강하여 체험 직후에는 노인의 상태나 노화에 대한 불안 및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에서 노인유사체험 직후의 부정적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33,35]. 이 연구들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체험 직후의 심리-정서적 충격, 불편감, 노화에 대한 불안감은 희석되고 노화는 노인만의 문제도, 자신만의 문제도 아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노화 및 노인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며, 그럼으

로써 노인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유사체험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전문지식만을 제공받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노인간호 실천의도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 측정된 사전자료에서 두 집단의 노인간호 실천의도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대한 사전점수를 공변량 처리한 후 사후자료에서의 두 집단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사전자료에서 노인간호 실천의도가 동일하지 않았던 것이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이며 분반으로 인해 무작위 배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분반에 따라 편의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정한 것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노인유사체험이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미친 효과를 검정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어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으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유사체험의 효과를 검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험 후 간호사의 돌봄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었으며[32] 바람직한 노인간호 실천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제시되었다[36]. 이는 노인유사체험을 통해 신체적 노화 과정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형성됨으로써 노인 대상자의 호소 사항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간호 실천의도 역시 노인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중재 후 두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 내의 중재 전·후 차이에 있어서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대조군의 경우 중재 전 보다 중재 후 노인간호 실천의도가 감소된 양상을 보였으며 실험군의 경우는 중재 전과 비교했을 때 중재 후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간호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노인간호 실천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 도구의 문항은 주로 노인에 대한 간호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당초 예측했던 바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간호 실무에 대한 대상자들의 이해부족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체험중재는 노인의 상태를 시뮬레이션 하는 도구들을 착용한 상태에서 보행, 계단오르기, 신문읽기, 물건집어보기 등의 활동을 수행해 봄으로써 노인의 일상생활과 노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인유사체험은 1회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유의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있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반복적으로 체험하도록 한 후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또한 평범한 일상을 체험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유형의 만성질환과 더불어 살아가는 노인들의 생활을 체험하도록 구성하였다면 더욱 실제적인 체험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병원 다녀오기, 검사실에서 검사받기, 약국에서 약 타기, 약물 복용하기, 질병 관련 리플렛 읽고 이해하기 등을 경험한다면 실무현장에서 노인을 간호할 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Varkey 등(2006)[30]이 의학 전공 대학생들로 하여금 관력기능과 시력을 감소시키는 장갑과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약물 복용을 체험하도록 하였는데 체험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개선됨은 물론 공감적 이해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인은 모든 인구집단 중 최대의 간호 수혜자로 부상하였고 노인 간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노인 간호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간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 외에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간호 관련 교과과정은 전문지식과 함께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콘텐츠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유사체험을 노인간호 관련 교과목에 도입한다면 전문지식과 함께 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반영한 체험들로 내용을 구성하거나 체험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적용한다면 체험에 대한 충격으로 체험 후 일시적으로나마 노인이나 노화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노인에 대한 공감을 높여 태도를 개선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사실험 연구설계를 적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간호 관련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유사 체험을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문지식만을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에게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유사체험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전문지식만을 제공받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있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재 후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유의하였던 반면, 집단 내의 중재 전-후의 차이는 예측한 바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전문지식과 함께 노인유사체험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경우는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노인에 대한 태도나 노인간호 실천의도에 있어 다소 개선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대조군의 경우는 중재 후 태도나 실천의도에 있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면 노인유사체험 직후에는 체험으로 인한 불편감과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체험 후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체험이 공감으로 자연스럽게 수렴될 수 있도록 체험을 마친 후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대상자들과 더불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본다. 또한 지금까지 적용된 노인유사체험이 주로 노인의 신체적 영역에 대한 체험으로 집중된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심리적 영역에 대한 노화를 공감할 수 있는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노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화된 체험내용이 구성된다면 노인에 대한 공감을 높임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나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한다.

## Reference

- [1] D. C. Goncalves, "From loving grandma to working with older adults: promot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Vol. 35, No. 3, pp. 202-225, 2009.
- [2] K. J. Lee, E. S. Kong, N. C. Kim, J. H. Kim, C. G. Kim, H. K. Kim, M. S. Song, S. Y. Ah, Y. W. Lee, S. O. Chang, S. J. Chon, N. O. Cho, M. O. Cho, & K. S. Choi, "Role and functions of the gerontological nurse practitioner", *J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6, No. 1, pp. 125-133, 2004.
- [3]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pp. 179-211, 1991.
- [4] K. A. Choi,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6.
- [5] M. Courtney, S. Tong, & A. Walsh,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 6, pp. 62-69, 2000.
- [6] S. H. Baik,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the application of a senior simulation for

- changing to a positive attitud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1, pp. 5-12, 2007.
- [7] E. J. Lee, & I. W. Kang, "Students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0, No. 2, pp. 183-194, 2006.
- [8] Y. J. Lee, S. J. Yoo, & S. M. Kim,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elderly", *Korean Journal of Ethics & Education*, Vol. 6, No. 2, pp. 199-211, 2003.
- [9] S. B. Robinson, & R. B. Rosher, "Effect of the "half-full aging simulation experience" on medical students' attitude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Vol. 21, No. 3, pp. 3-12, 2001.
- [10] Y. J. Lee, "A study on the offering status and curriculum of gerontological nursing co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11] E. S. Yun, "Study on the curriculum of gerontological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12] J. H. Kim, "Short-term effects of gerontological nursing lecture course on attitudes toward elde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0, No. 2, pp. 173-181, 2008.
- [13] M. S. Yoo, J. H. Park, & Y. S. Kim, "Image and attitude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 14, No. 2, pp. 83-90, 2007.
- [14] C. R. Rogers,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1, pp. 95-103, 1957.
- [15] I. Kang, "Effect of adults senior simulation on the attitude toward aging of the elderly and senior simulator",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19, pp. 7-30, 2003.
- [16] G. F. Sanders, J. E. Montgomery, Jr. J. F. Pittman, &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3, No. 1, pp. 59-70, 1984.
- [17] H. J. Choi, "The research is nurse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for old age pa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02.
- [18] C. Middleton, & S. Smith, "Purchasing habits of senior farmers' market shoppers: Utiliz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Nutrition in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 30, pp. 248-260, 2011.
- [19] D. M. DeJoy, "Theoretical models of health behavior and workplace self-protective behavior", *Journal of Safety Research*, Vol. 27, No. 2, pp. 61 - 72, 1996.
- [20] N. Pender, C. Murdaugh, & M. A. Parsons,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Prentice Hall, 2002.
- [21] C. D. Batson, M. P. Poly, E. Harmon-Jones, H. J. Imhoff, E. C. Mitchener, L. L. Bednar, T. R. Klein, & L. Highberger,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 toward the group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2, No. 1, pp. 105-118, 1997.
- [22] C. Irimia, "Empathy as a source of attitude change", *Contemporary Readings in Law and Social Justice*, Vol. 2, No. 2, pp. 319-324, 2010.
- [23] M. S. Song, E. S. Kong, G. B. Kim, N. C. Kim, C. H. Kim, C. K. Kim, H. K. Kim, Y. J. Roh, K. R. Shin, S. Y. Ahn, K. J. Lee, Y. W. Lee, S. O. Chang, S. J. Chon, N. O. Cho, M. O. Cho, & K. S. Choi, "Development of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um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3, No. 3, pp. 376-385, 2003.
- [24] G. Falls, "The effects of social context, age and sex on interpersonal attitudes toward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Georgia, 1975.
- [25] C. E. Osgood, G. J. Suci, & P. H. Tannenbaum,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7.
- [26] J. R. Han,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0, No. 3, pp. 115-127, 2000.
- [27] S. Y. Kim, K. M. Y, H. E. Oh, & J. S. Kim,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3, pp. 21-36, 2002.
- [28] S. W. Choi, "Effects of aging simulation on geriatric unit nurses' attitudes and job satisfaction toward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6.
- [29] S. J. Yu, S. M. Kim, & Y. J. Lee,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nurse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4, No. 6, pp. 974-982, 2004.
- [30] P. varkey, D. S. Chutka, & T. G. Lesnick, "The aging game: improving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JAMDA*, pp. 224-229, May, 2006.
- [31] A. S. Eymard, B. D. Crawford, & T. M. Keller, "Take a walk in my shoes: Nursing students take a walk in older adults' shoes to increase knowledge and empathy", *Geriatric Nursing*, Vo. 31, No. 2, pp. 137-141, 2010.

- [32] Y. O. Kim,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nurses'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care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9.
- [33] M. D. Wood, "Experiential learning for undergraduates: a simulation about functional change and aging",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Vol. 23, No. 2, pp. 37-48, 2002.
- [34] B. W. Henry, C. Douglass, & I. M. Kostiva,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n aging game simulation activity on the attitudes of allied health students toward older adults", The Internet Journal of Allied Health Sciences and Practice, Vol. 5, No. 4, pp. 1-9, 2007.
- [35] J. T. Pacala, C. Boulton, & K. Hepburn, "Ten years' experience conducting the aging game workshop: was it worth it?",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 Society(JAGS), Vol. 54, pp. 144-149, 2006.
- [36] S. M. Jung, "The relationship with the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of the nurses-towards the elderly in geriatric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9.

---

**정혜선(Hye-Sun Jeong)**

[정회원]



- 1996년 8월 : 가톨릭대학교(간호학석사)
- 2001년 8월 : 가톨릭대학교(간호학박사)
- 2010년 2월 : 고려대학교(교육학석사)
- 1997년 3월 ~ 2010년 7월 : 극동정보대학 간호과 부교수
- 2010년 7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에 대한 태도, 공감, 건강증진

---

**오현수(Hyun-Soo Oh)**

[정회원]



- 1990년 8월 : Univ. of Texas at Austin(간호학석사)
- 1993년 5월 : Univ. of Texas at Austin(간호학박사)
- 1995년 9월 ~ 현재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재활간호, 간호중재